

한국청년방일단 (제 4~5 단) 초빙 사업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개요】 ‘일본 이해 촉진 프로그램 (JENESYS 2025)’의 일환으로, 한국 전역에서 선발된 발신력이 있는 대학생 등 71명이 1월20일부터 28일까지 앞으로의 일한 간 상호 이해와 신뢰 관계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방일하였습니다. 방일단은 테마 ‘일한 공통의 과제를 생각한다’라는 테마로 오사카부, 도쿠시마현, 효고현을 방문하여 각종 시찰, 동세대교류 테마에 따른 특강 청강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중의 배움과 방문지의 매력에 대해 SNS 등으로 발신하였습니다.

【참가자】 한국 대학생 등 총 71 명

【방문지】 오사카부 71 명, 도쿠시마현 71 명, 효고현 71 명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학습) :

1 월 9 일 (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참가자에 의한 대외발신

■ 초빙 프로그램 :

1 월 20 일 (화) 간사이국제공항 입국

1 월 21 일 (수) 오리엔테이션

【특강】 외무성 ‘최근 일한관계에 대해’ (온라인으로 실시)

【시찰】 오사카 ATC 그린에코플라자

【시찰】 아베노 하루카스 백야드투어

1 월 22 일 (목) 【학교방문·교류】 제 4 단 : 테즈카야마가쿠인대학

【동세대교류】 제 5 단 : JKAF (대학생방한단 OBOG 조직) 과의 교류

1 월 23 일 (금) 도쿠시마현으로 이동, 【예방】 도쿠시마현청, 【특강】 도쿠시마현의 관광의 매력

【특강】 지역활성화 사례, 가미야마의 마을 만들기

1 월 24 일 (토) 【시찰】 도쿠시마현 미마시 우다쓰 거리 (현지 해설사와 함께)

【교류·체험】 아와오도리(지역주민들과 함께),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1 월 25 일 (일) 홈스테이

1 월 26 일 (월) 【시찰】 가미카쓰 제로 웨이스트 센터, 목질바이오매스 사업,

【특강】 ‘합파 비즈니스(앞사귀 비즈니스)에 대해’, 효고현으로 이동

1 월 27 일 (화) 【시찰】 한신·아와지 대지진 재해기념 인간과 방재 미래 센터, 오사카부로 이동, 액션플랜 및 소감 발표회

1 월 28 일 (수) 간사이국제공항 출국

2. 기록사진

	
<p>1 월 21 일 【특강】 외무성 ‘최근 일한관계에 대해’</p>	<p>1 월 21 일 【시찰】 오사카 ATC 그린에코플라자</p>
	
<p>1 월 21 일 【시찰】 아베노 하루카스 백야드투어</p>	<p>1 월 22 일 【학교방문·교류】 제 4 단 : 테즈카야마가쿠인대학</p>
	
<p>1 월 22 일 【동세대교류】 제 5 단 : JKAF (대학생방한단 OBOG 조직) 과의 교류</p>	<p>1 월 23 일 【예방】 도쿠시마현청</p>
	
<p>1 월 24 일 【교류】 홈스테이</p>	<p>1 월 26 일 【시찰】 가미카쓰 제로 웨이스트 센터</p>

	
<p>1 월 27 일 【시찰】 한신·아와지 대지진 재해기념 인간과 방재 미래 센터</p>	<p>1 월 27 일 액션플랜 및 소감 발표회</p>

3. 참가자의 감상 (발췌)

◆ 한국 대학생

아베노하루카스를 방문해서 일반적인 전망대 관람을 넘어, 건물을 지탱하는 거대한 공조 시스템, 전기 설비, 방재 센터 등을 직접 확인한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300m 높이의 건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설계와 관리가 뒷받침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 한국 대학생

양국이 맞이하는 문제들, 고령화와 환경, 재해의 문제들은 모두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이웃나라, 여행가기 좋은 나라를 넘어 같은 문제에 직면한 일본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한다.

◆ 한국 대학생

한국과 일본의 공통 과제와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안에 관한 강의가 특히 인상 깊었다. 지금까지 크게 의식하지 못했던 양국 공통의 사회 과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미카쓰초의 ‘앞사귀 비즈니스’ 사례는 강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대학에서 이론적으로 배우고 있는 경영학 지식을 실제 지역 비즈니스 현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노력이 단순한 사업 활동에 그치지 않고 고령화나 지역 활성화 같은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한국 대학생

시찰에서는 실제로 현지를 견학하고 체험함으로써 이해가 더욱 깊어 졌고, 강의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은 배움을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방일단의 일정 중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교류 시간이었다. 방한단 학생들과의 만남과 홈스테이를 통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을 수 있어 매우 기뻐다.

4. 일본측 감상 (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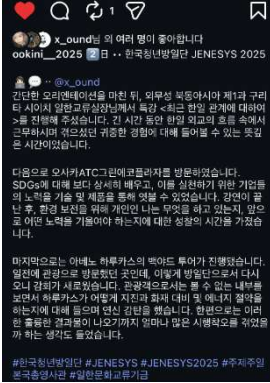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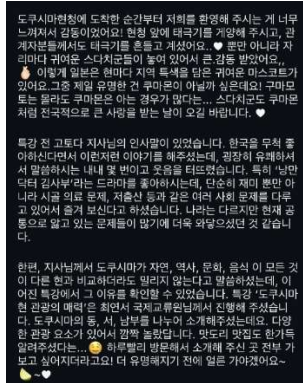
◆ 도쿠시마현청 관계자

이번에 한국에서 큰 뜻을 가진 대학생들을 포함한 방일단을 도쿠시마현에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사 면담과 강의에서는 도쿠시마의 관광 정책과 지역 활성화 사례에 대해 열심히 귀 기울이는 학생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마시 우다쓰 거리 풍경’ 시찰과 홈스테이, 가미카쓰초에서의 제로 웨이스트 체험 등을 통해 도쿠시마만의 독특한 문화와 환경 보호 활동을 직접 느껴 보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짧은 체류였지만, 이번 교류를 계기로 젊은 리더인 여러분이 도쿠시마의 팬이 되어 그 매력을 한국에 널리 알려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홈스테이 호스트패밀리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는 학생들을 만나 일상 속에서 한일 교류를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2박 3일이었습니다. 일본의 생활, 문화, 일본인의 가치관 등에 큰 관심과 흥미를 보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많이 놀아 주기도 하고, 김밥도 만들어 주며 마지막에는 편지까지 건네준 마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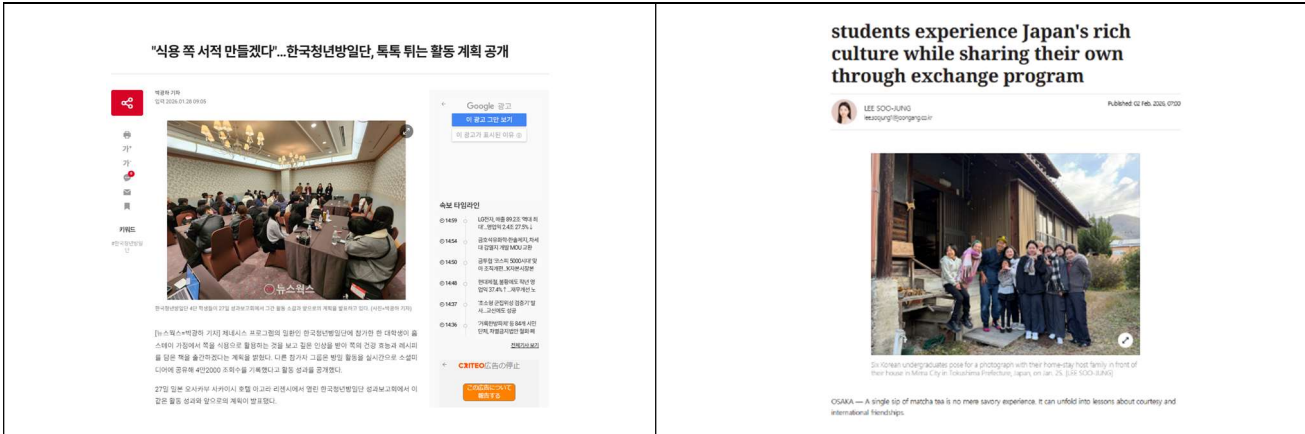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체), 보도기사 등

	
<p>2026년1월21일(Instagram : 오사카ATC그린에코 플라자, 아베노 하루카스 백야드투어) (발체) 오사카 ATC 그린 에코 플라자를 방문하여 SDGs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배웠다. 기업이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떤 기술과 제품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시찰 후에는 스스로가 환경 보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베노 하루카스 백야드투어에 참여했다. 이전에 관광차 방문했던 장소였지만, 방일단의 일원으로 다시 방문해보니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내부를 견학하며 지진 대책과 방재 설비,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배웠고,</p>	<p>2026년1월23일(Instagram : 도쿠시마현청 예방) (발체) 도쿠시마현청에 도착한 순간부터 환영받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감동했다! 강의 전에 지사님의 인사가 있었는데, 한국을 매우 좋아하신다며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매우 유쾌했고, 말씀하시는 내내 계속 웃음이 나왔다. 특히 의료 관련 드라마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재미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방 의료 문제나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즐겁게 보고 계신다고 하셨다. 나라는 달라도 현재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많아서 더 와닿은 것 같다. 한편 지사님은 도쿠시마가 자연, 역사, 문화, 음</p>

<p>그 철저한 대응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동시에 이러한 성과 뒤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있었음을 실감했다.</p>	<p>식 모든 면에서 다른 현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쿠시마현의 매력’ 강의 를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쿠시마 현의 동부, 서부, 남부를 나누어 소개해 주셨기에 하루빨리 도쿠시마를 다시 방문해 소개받은 모든 장소를 가 보고 싶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m.blog.naver.com</p> <p>3. 지방 창생의 혁신, 가미야마초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인구 감소 문제를 대하는 도쿠시마의 태도였다.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줄어든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살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전략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또한 낡은 민가를 리모델링하여 IT 기업의 위성 오피스를 유치하고, 전 세계 예술가들을 불러모으는 가미야마초의 사례는 인상적이었다. 초고속 인터넷망이라는 현대적 인프라와 고즈넉한 자연이 결합했을 때, 지방 도시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시골을 더욱 불러오는 마중물로 작용하여 가미야마초에 가미야마 마루교로, 연립고등학교가 생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흥미가 온었다.</p> <p>이 이외에도 가미야마초의 고질적인 인구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미야마 연대공사를 진행하고, 그러한 연대공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고 동시에 고향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한국의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p> <p>이 는 가미야마초의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더욱 드러나는데, 이 방향의 내용을 도시회 블로그에 더 알을 수 있어 구글 트랜스리브 링크를 남</p>	 <p>가미야마초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소개되어 있다. 사진에는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과 'ZERO WASTE'라는 문구가 보인다. 블로그 내용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소개되어 있다. 사진에는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과 'ZERO WASTE'라는 문구가 보인다.</p>
--	---

<p>2026년1월23일(블로그 : 가미야마 연대공사 특강) (발췌)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인구 감소 문제를 대하는 도쿠시마의 태도였다.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줄어든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살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전략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또한 낡은 민가를 리모델링하여 IT 기업의 위성 오피스를 유치하고, 전 세계 예술가들을 불러모으는 가미야마 초의 사례는 인상적이었다. 초고속 인터넷망이라는 현대적 인프라와 고즈넉한 자연이 결합했을 때, 지방 도시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이외에도 가미야마초의 고질적인 인구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미야마 연대공사를 진행하고, 그러한 연대공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고 동시에 고향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한국의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p>	<p>2026년1월26일(블로그 : 가미카쓰 제로 웨이스트 센터) (발췌)가미카쓰 제로 웨이스트 센터에서는 쓰레기를 40여종 이상으로 세분화해 분리 배출하는 정책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닌 다시 쓰는 자원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설명이 기억에 남았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공간은 쿠루쿠루 슝(재사용 공간)이었다.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가져와 필요한 사람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공간으로 쓰레기와 자원의 경계를 다시 정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두 사례 모두 지역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환경 정책은 제도보다 생활 속 실천과 지역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찰이었다.</p>
--	--



2026년1월28일 (NewsWorks)

“식용 쪽 서적 만들겠다”...한국청년방일단, 특 특 튀는 활동 계획 공개라는 제목으로, 일정 중의 소감 발표회 모습을 다루고, 단원의 액션 플랜 등에 대해 소개.

2026년2월2일 (Korea JoongAng Daily)

‘차·춤·배려—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학생들이 일본의 풍부한 문화를 체험하고 자국 문화를 알리다’라는 제목으로 대학 방문, 아와오도리 체험, 홈스테이 모습을 소개.

6. 보고회에서의 방일성과와 액션플랜 발표 (개요 또는 발제를 기재함)



【성과발표】

- 가미야마초 지역 활성화 사례 강의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천하는 사람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최근 젊은 세대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성을 요구받지만, 방일단을 통해 완벽한 아이디어보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하며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 참여 전에는 환경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고, 국가나 기업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모아 의견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가 안고

【성과발표】

- 이번 JENESYS 2025 프로그램을 통해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해 현지 체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환경 문제와 방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련한 시찰에서는 일본이 앞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접하며 우리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 일본 대학생들과의 교류와 홈스테이를 통해 또래 세대 및 현지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한일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p>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베노 하루카스 백야드 투어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다. 배운 내용을 한국의 건물에도 도입할 수 있다면 한국의 쓰레기 문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 방일단을 통해 일본을 국가가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서 친근한 이웃나라로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살려 일상 속에서도 일본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한일 교류에 매진하고자 한다. <p>【액션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에 배운 일본의 환경 정책과 지방 활성화 사례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고 블로그에 게재해, 한일의 공통 과제를 알기 쉽게 소개한다. • 전공이 아동청소년학과인 만큼 한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비교·조사하고, 서로 어떤 방식으로 배워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SNS에 업로드한다. • 도쿠시마라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를 기획해 활동한다. • 가미카쓰초에서는 쓰레기를 세분화하여 재활용률 80%를 달성했다. 작은 마을이지만 규모보다 시민의 참여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속 학교에는 환경에 관심 있는 학생이 많으므로, 제로 웨이스트 사례와 자료를 정리해 수업이나 동아리에서 발표하고, 소규모이지만 ‘제로 웨이스트 주간’이라는 이벤트를 기획, 실시한다. 	<p>기반이라는 것을 느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일본 방문은 단순한 시찰에 그치지 않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한일 교류의 의미를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실감할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 경험을 앞으로의 배움과 행동으로 이어가며 양국의 미래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기여하고 싶다. <p>【액션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을 배려한 행동 실천으로서 제로 웨이스트 개념을 도입해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등을 일상생활에서 지속한다. • SNS를 통한 한일 사회 문제 발신의 일환으로 환경, 방재, 지역 활성화에 관한 한일 양국의 노력을 소개한다. • 아이(藍·쪽)를 주제로 한 서적 제작의 일환으로 아이의 역사와 건강 효과, 한국과 일본의 레시피를 모은 책을 제작해 그 매력을 알린다. • 방일 경험 공유하기 위해 홈스테이와 문화 체험을 통해 얻은 배움을 블로그에 소개하고 방문 기간 동안 촬영한 영상을 짧은 콘텐츠로 편집·공개하여 또래 세대 교류 및 지역 체험의 매력을 널리 알린다. • 한일 교류 지속의 일환으로 현지에서 만난 학생과 호스트 가족과의 교류를 이어간다. • 이번 경험을 앞으로의 학습으로 연결하는 활동으로서, 방일을 통해 알게 된 한일 공통의 과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향후 활동에 활용한다.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